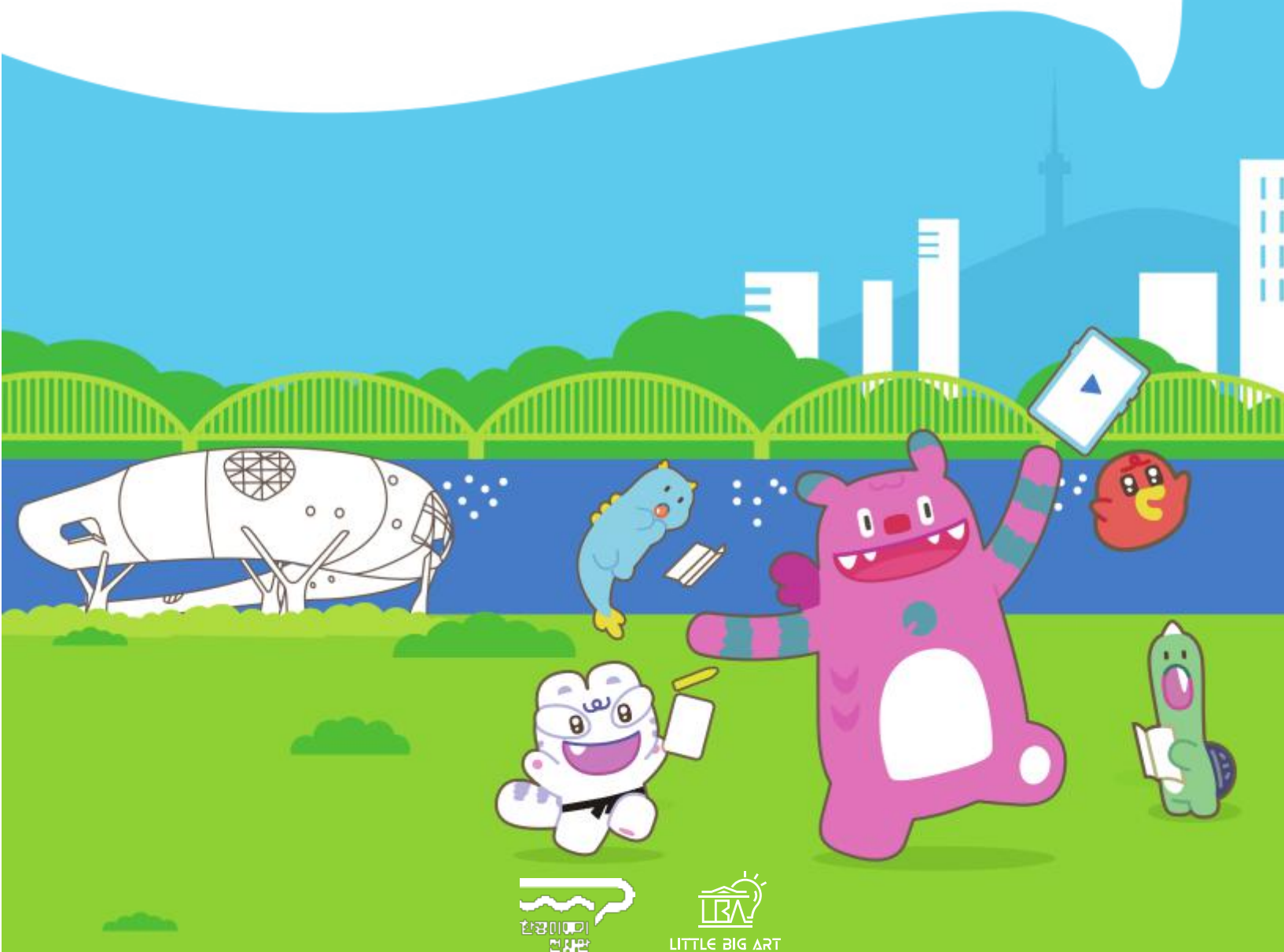


한강이야기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한강 이야기 속으로 풍~덩!



한강, 이야기의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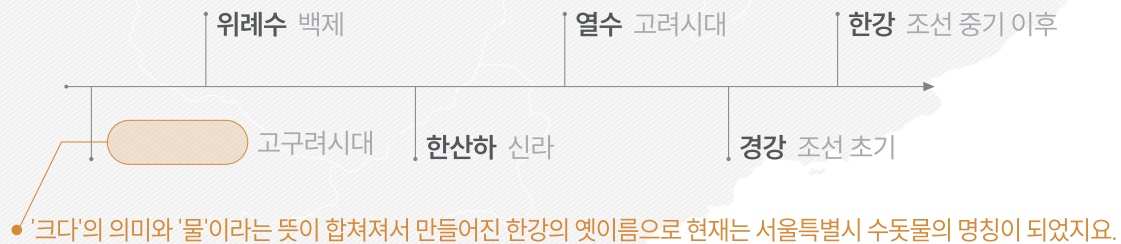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젓줄'이라 불리는 한강은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강입니다. 단순한 물줄기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을 이어온 중요한 자연 자원이자, 선조들이 문명을 꽃피운 장소이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치열한 전투, 조선시대의 번영, 근현대의 산업화까지 한강이 품은 역사적인 순간들과 한강의 변천 과정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천년 역사를 담고 있는 한강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한강, 어디까지 알고있니?

한강의 옛 이름

한강의 옛 이름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한강의 특징이나 그 주변의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러번 변천하였어요. 아래의 그림은 시대 순으로 한강의 옛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고구려 시대에 한강의 옛 이름을 빈칸에 적어 넣으세요.



한강의 시작과 끝

한강의 시작: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검룡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 지류를 만나면서 한강을 이루게 되지요.

한강의 끝: 한강은 서울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서 서해로 이어져요. 즉, 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해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이랍니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들은 한강의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며, 서울의 교통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약 5000 년 전, 선사시대(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시대) 사람들은 한강 유역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았을까요?
한강 유역의 선사시대 유물들과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당시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형성했는지 알아보아요.

선사시대 유적지

선사 주거지의 모습이 드러나다!



이곳은 선사시대 선조들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 유적지예요. 아래의 설명을 읽고,
이 유적지는 서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정표에 적어 넣으세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석기 시대 움집 터 유적지예요.

약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정착하여 생활했던 장소로, 그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1925년 서울에서 대홍수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한강 둘레의 모래가 확 쓸려 내려가면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현재 이 선사주거지는 한강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지만, 과거에는 한강 바로 옆의 모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강물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옛날 집터가 모래층 아래에 보호되어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자연적인 보호막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생활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선사시대 유물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선사시대 사람들은 한강 주변에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어요. 그들은 강가에서 돌과 나무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사용해 집을 지어 살았지요. 주먹도끼, 돌칼, 토기 등은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했던 도구들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던 모습을 보여주지요.

움집

움집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주거 형태 중 하나로, 땅을 파서 만든 반지하식 주거지예요. 움집은 땅을 얇게 파고 그 위에 나무와 흙, 풀 등을 이용해 지붕을 덮어 만들었지요.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나 비, 바람을 막아주고, 내부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아래의 사진들은 움집에 살고 있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예요.
설명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유물을 적어 넣으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농경 활동에서 땅을 파거나
흙을 뒤집는데 사용되었어요.



•갈돌과 갈판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소장)

곡식이나 식물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된 도구예요.



•빗살무늬토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진흙을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토기를 만들었어요.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삼국시대의 한강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차지하고 싶어 했던 아주 중요한 강이었어요. 이 세 나라는 한강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기 위해 한강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강은 물길이 좋아서 물건을 옮기거나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삼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은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잘 보여주며, 오늘날 서울이라는 도시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어요.

삼국이 꿈꾸던 강, 한강 한강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

-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빈칸에 적어 보세요.



적의 침입을 막아라

백제, 고구려, 신라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성곽을 건설했어요. 이 성곽들은 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방어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각 나라의 군사적 전략과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지요.

• 다음 성곽의 특징을 읽고, 어느 나라의 것인지 빈 칸에 적어 보세요.



풍납토성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이 나라의 초기 수도였던 한성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에요. 이 성곽은 주로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나라의 중요한 정치와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심지였어요. 풍납토성은 한강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물자를 쉽게 이동시키고,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은 이 나라가 한강 유역에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몽촌토성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요한 성곽 이예요. 이 성곽은 풍납토성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예요. 현재 이 성곽은 올림픽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서 외부의 적 들을 방어하는데 사용되었어요. 이곳은 산의 능선을 따라 쌓아 올린 성곽으로, 이 나라가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에요.

조선 시대의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 강이었어요. 한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양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물자 수송, 농업, 그리고 상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어요. 한강의 물길을 통해 곡식, 소금, 나무 등 필수 자원을 서울로 실어 나르며,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었지요. 또한, 한강 주변에는 여러 나루터가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장터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팔며 활기찬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답니다.

조선의 심장, 한강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한강은 왜 중요했을까?



1. 물자 운송의 중심지

한강은 물길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조선시대에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무거운 물건을 멀리 운반할 때 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죠. 배를 이용해 쌀, 소금, 나무 같은 필요한 물건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옮겨졌고, 이를 통해 서울이 조선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2. 농업과 식량 공급

한강 주변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한강은 풍부한 물을 제공해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한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한강 주변에서 생산된 쌀과 같은 농산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답니다.



3. 방어와 전략적 위치

한양(서울)은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강은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어, 적들이 쉽게 한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줬지요.



4. 생활과 문화의 중심

한강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장소이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배를 타고 한강을 구경하는 등의 여가 활동을 즐겼답니다.

한강나루터 조선팔도 상인이 모이다!

조선 시대의 한강 주변에는 여러 나루터가 있었어요. 이곳에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팔았어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온 상인들이 쌀, 소금, 생선, 옹기 같은 물건들을 한강에 내리면, 바로 시장이 열렸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고, 길거리 음식도 팔고, 놀이판도 벌어지며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처럼 한강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 간의 교류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중요한 공간이 었답니다.



• 아래의 설명을 읽고 무엇을 파는 상인과 관련된 내용인지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것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당시 귀하고 값이 비싸서 화폐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현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동네, '염창동'은 조선시대에 '이것'을 저장하고 관리하였던 창고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조선 시대의 한강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장소였어요. 한강을 따라 장터가 열리고, 사람들은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살아갔어요. 이런 이유로 한강 주변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활기찼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한강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 후기의 유명한 화가인 겸재 정선이에요. 그는 한강과 그 주변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세밀하게 그려냈어요.

그의 그림은 단순히 자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한강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이렇게 한강과 관련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시대의 자연과 생활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시선 봄 끝에 흐르는 한강의 숨결

• 겸재 정선의 <겸교명승첩>에 실려 있는 그림들과 알맞은 설명을 이어보세요.



이 그림은 옛날에 서울의 가양동에서 바라본 한강의 고기잡이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림 속에서 한강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여러 척 떠있고,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이 보여요. 복사꽃이 강을 따라 떠나려가며, 한강의 봄 풍경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천현에서 바라본 남산의 해돋이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두개의 남산 봉우리 뒤에서 머리를 내미는 붉은 해가 그려져 있고, 어부들이 고깃배를 몰고 오는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어요.

한강을 담다 겸재 정선



겸재 정선
1676-1759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소악루 일대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림 속에는 솔숲 사이로 소악루와
그 주변으로 잡목 숲이 우거져 있어요.
남산 위에는 둥근 달이 떠 있으며
강변에는 버드나무 거목 몇 그루가
늘어진 가지들을 풀어헤치고
우뚝 서 있네요.



눈이 쌓인 새벽녘,
삿갓과 눈옷을 입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홀로 길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나무마다 눈꽃이 만발하고,
산과 들은 온통 눈에 뒤덮여 있는
가운데 멀리 우장산의
두 봉우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한강의 역할도 크게 변했어요. 1899년에 경인선 철도가 최초로 개통되면서, 사람들은 한강에서 배로 물건을 옮기기보다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한강에 있는 나루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역사 속에 유물로 남게 되었지요.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한강에 여러 다리들이 건설되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과 물건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이용해야 했지만, 여러 개의 대교가 생기게 되면서 서울의 북쪽과 남쪽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한강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변하면서 서울의 발전과도 깊이 연결되었답니다.

근현대사의 상징물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대교

• 아래의 설명은 서울에 있는 무슨 대교에 대한 내용인지 보기에서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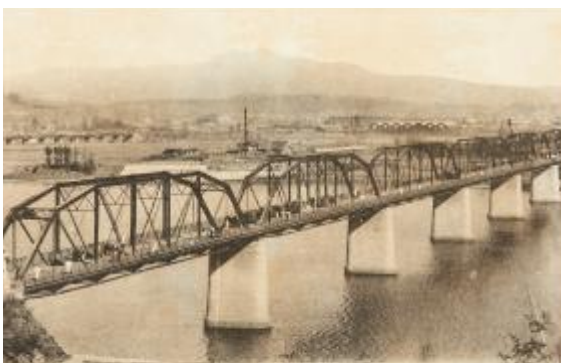
1번 잠실대교

2번 한강대교

3번 마포대교

이 대교는 서울과 용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로,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원래 이름은 '한강인도교'였습니다. 이 다리는 처음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건설되었고, 서울의 중요한 교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1950년에 공식적으로 '()대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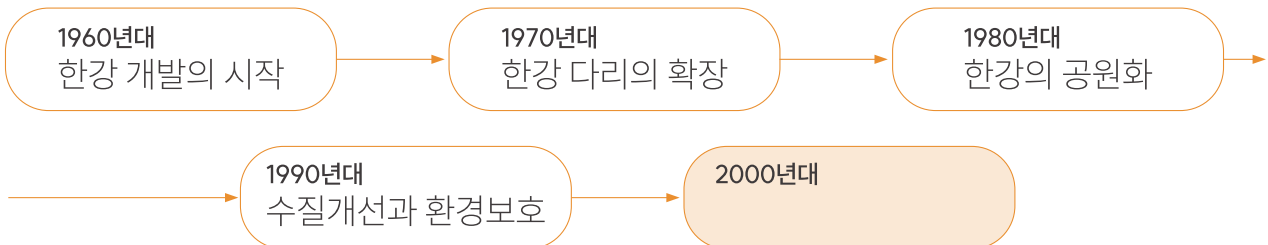
6·25전쟁이 일어나고 3일 후, 정부는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이 대교를 폭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다리 위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고, 폭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후, 이 대교는 다시 복구되었고, 이후 서울의 경제 발전과 교통망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대교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상징물로, 지금도 서울 시민들에게 중요한 다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강의 개발 한강, 산업화의 무대가 되다

1960년대부터 한강은 서울의 도시화와 함께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 후 빠르게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한강 역시 서울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은 1960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강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2000년대에 한강을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던지 빈 칸에 적어 넣으세요.



Hint

이 용어는 프랑스어로 '다시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혁신의 시기를 말해요. 이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시 연구하고, 그 영향을 받아 예술과 학문이 크게 발전했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다양한 섬들이 자리잡고 있어요. 이 섬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서울의 변화와 발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들이에요. 과거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녔던 이 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의 도시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예전에는 농사와 어업, 사람들이 생활하는 터전이었던 섬들이 이제는 서울의 경제, 문화, 여가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지요. 그럼 한강의 주요 섬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섬들의 변신 과거와 현재의 한강 섬 이야기

다음은 서울에 위치한 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섬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1번 여의도

2번 잠실

3번 뚝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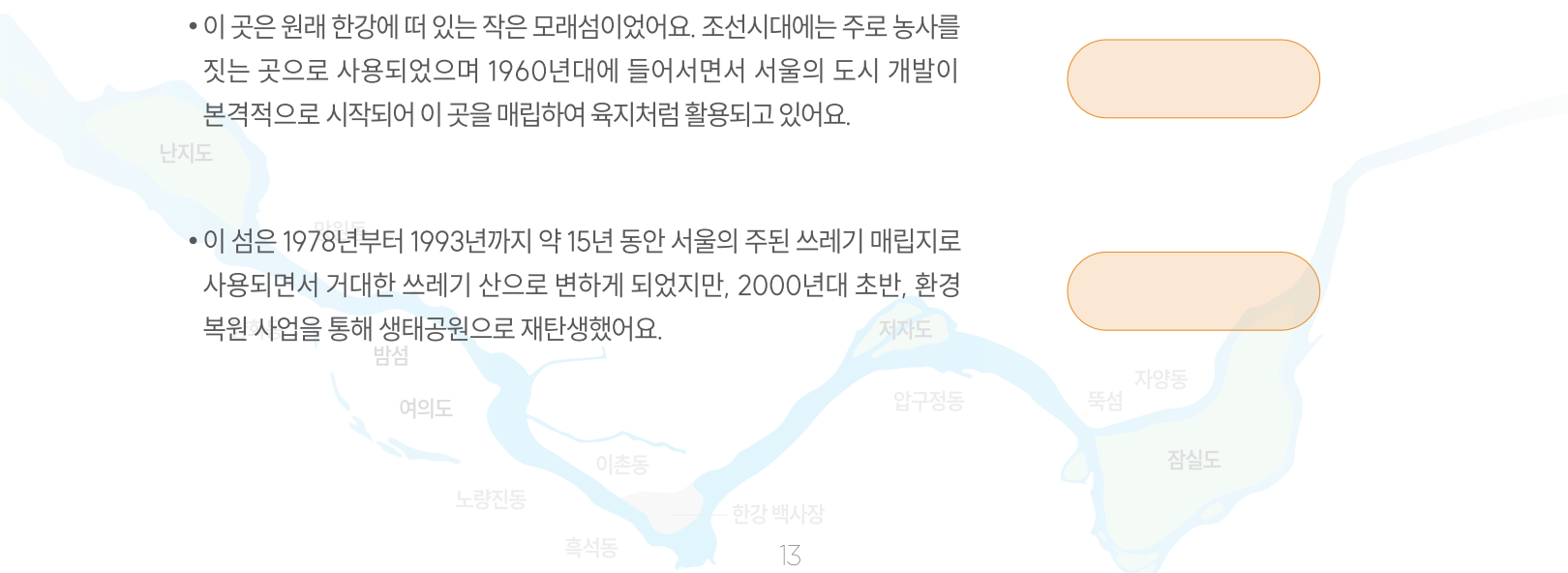
4번 난지도

- 이곳은 과거에는 한강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사냥을 즐기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강의 모래가 쌓여 점차 육지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 "누에를 치는 방"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왕실의 누에를 키우던 지역이었어요. 당시에는 한강에 떠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 지역의 섬들은 매립 작업을 통해 육지가 되었어요.

- 이 곳은 원래 한강에 떠 있는 작은 모래섬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주로 농사를 짓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곳을 매립하여 육지처럼 활용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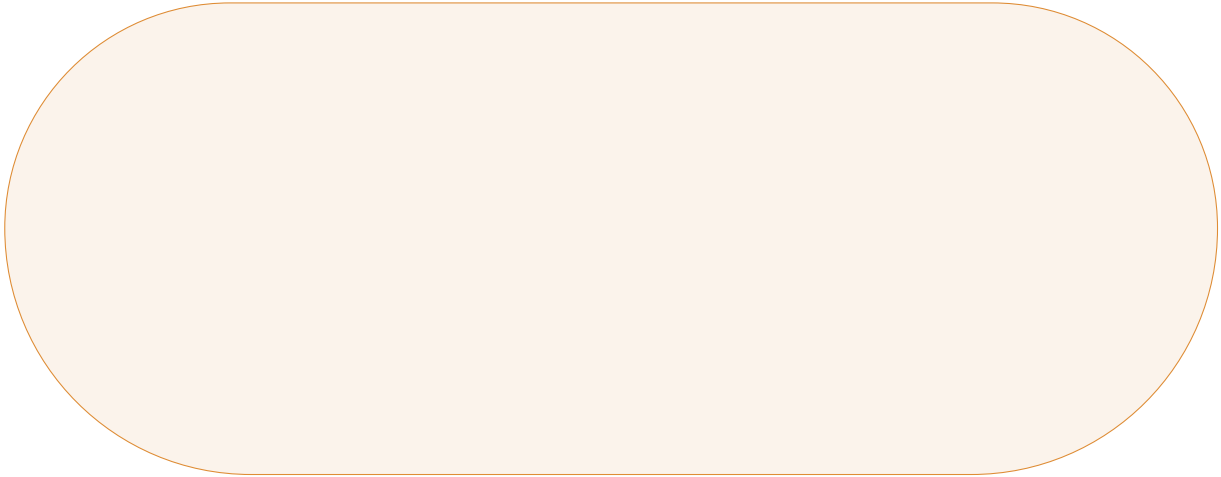
- 이 섬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서울의 주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면서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환경 복원 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어요.



한강이야기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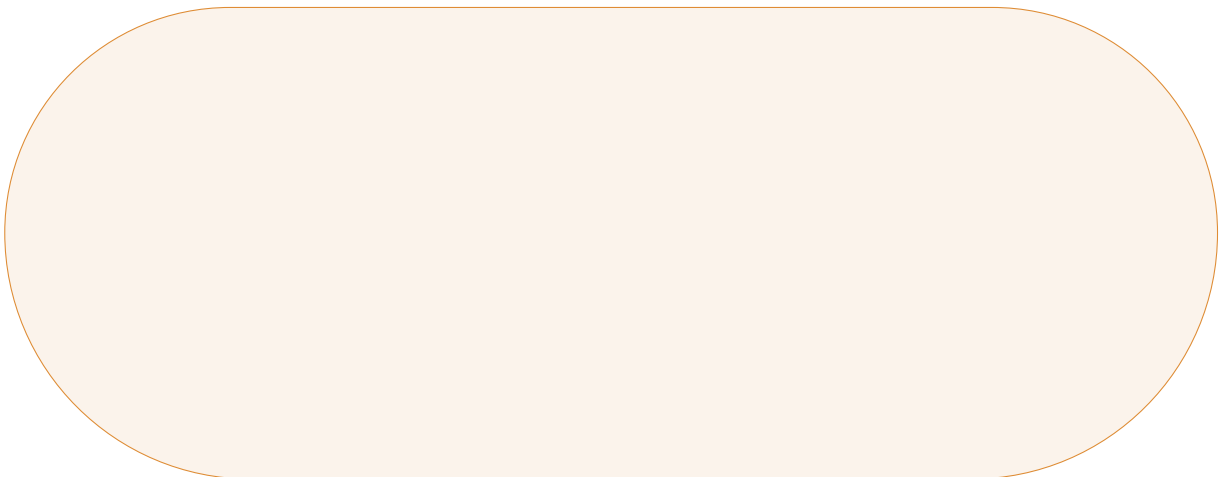
질문1.

한강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미래의 한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이름 :



리틀빅아트



한강이야기전시관